

FOR IMMEDIATE RELEASE

Contact:
Christopher Rieck
O'Melveny & Myers LLP
+1 212 326 2218
crieck@omm.com

오멜버니 서울 사무소, 김새진 미국 변호사 영입, 해외 인수합병 역량 강화

서울—2021년 2월 18일—오멜버니 & 마이어스는 한국 시장의 해외 인수합병 분야에서 높이 인정받는 김새진(다니엘 김) 미국 변호사가 파트너로서 서울 사무소에 합류했다고 오늘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신영욱 미국 변호사와 함께 오멜버니 서울 사무소의 공동 대표를 맡을 예정이고, 오멜버니의 Firmwide Chair of Korea Practice 인 조셉 김 미국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오멜버니 합류 전 김 변호사는 폴 헤이스팅스 서울사무소의 한국 기업자문 팀장을 역임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 시장에서 국제 인수합병, 사모 펀드, 국제 합작투자에 관해 활발히 자문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대기업의 대형 해외 인수합병을 도맡아서 자문해 왔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나진강 미국 변호사도 최근 오멜버니 기업자문팀으로 서울 사무소에 합류하였다.

오멜버니의 브래드 버트윈 회장은 "김 변호사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 대기업의 대형 해외 인수합병들을 주도적으로 자문해 왔다. 오멜버니는 김 변호사 영입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우리 로펌이 가장 중요한 고객으로 여기는 한국 기업들에게 종합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고객에게 원활하게 국제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책에 따라서, 오멜버니는 한국 법률 시장이 2012년 개방된 후 서울에 사무실을 최초로 설립한 미국 로펌들 중 하나이다. 그 이후로 오멜버니는 한국 시장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국제 로펌으로 손꼽히고 있고, 전자,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미디어, 제약 등 다양한 산업에서 고객을 자문하고 있다.

7년 연속으로, *Chambers Global* 과 *Chambers Asia-Pacific* 는 김 변호사를 한국 인수합병 분야 '최고 등급(Band 1)'에 선정하였고, *Legal 500 Asia* 는 김 변호사를 인수합병 분야의 '선도적 변호사(Leading Lawyer)'에 올려 두고 있다. 김 변호사는 대표적으로 거래액이 80억 달러에 이르고 당시에 한국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 가운데 사상 최대로 꼽혔던 삼성전자의 하만 인터내셔널 인수 건을 자문하였다.

조셉 김 미국 변호사는 "김새진 변호사와 나진강 변호사의 합류를 크게 환영한다"며 "야심 차게 대형 해외 진출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에게 오멜버니 한국업무팀은 고난도의

FOR IMMEDIATE RELEASE

Contact:
Christopher Rieck
O'Melveny & Myers LLP
+1 212 326 2218
crieck@omm.com

소송에서, 이제는 인수합병과 투자에서도 최고 수준의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나 변호사는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다. 두 사람 모두 한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 등록되어 있고, 한국어에 능통하다.

** 오멜버니 & 마이어스 서울사무소는 법무부로부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인가를 받아서 설립되었습니다.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서, 오멜버니 서울사무소는 미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 미국이 당사국인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국제중재사건의 대리(미국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